

쓰레기 제로를 위한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의 「쓰레기0운동」



정토회는 1988년 법륜스님이 중심이 되어 청정국토를 이 땅에 일구겠다는 서원으로 맺어진 실천공동체이다.

쓰레기0(제로)운동은 정토회 산하 '한국불교환경교육원'에서 추진 중인 '깨끗한 땅' 만들기 운동으로 남부터미널 근처에 있는 정토회관에서 시작되어 약 4년 간 추진되고 있다.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실천사업부 최기진 간사를 통해 들어본 쓰레기0에 도전하는 이곳의 노력은 분석적이고 체계적이며 장기적이었다.

정토회에서 쓰레기0운동을 벌이게 된 계기는?

“정토회의 지향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맑은 마음, 좋은 벗, 깨끗한 땅’입니다. 쓰레기 0운동은 이 중 ‘깨끗한 땅’ 만들기 노력으로 처음에는 인간과 환경이 하나의 생명이라는 ‘생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환경과 인간을 분리해서 보던 관점을 바꾸자는 것이죠. 그 당시 생소하던 ‘생명운동’이라는 개념을 알려내려고 노력했습니다.

10년의 생명운동 끝에 1998년, 그간의 노력이 이념적인 부분이었다면 앞으로는 실천적 노력으로 나아가 한다고 평가되었죠. 그래서 정토회가 먼저 실천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안을 찾아 대중적으로 실천하게 한다는 목표로 1999년부터 쓰레기 제로를 위한 노력이 정토회관 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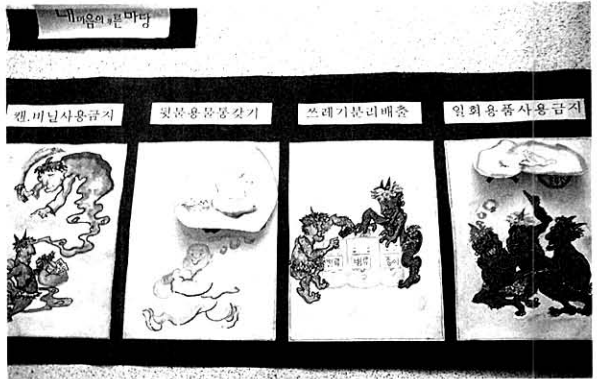
이 운동이 지향하는 바는?

“우리는 환경문제의 원인이 자본주의적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적게 먹고, 적게 입고, 적게 자는 것’으로 바꾸는 즉, 생활습관을 바꾸자는 운동입니다. 현재 진행하는 몇 가지 사업들은 그 초석을 다지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토회관 내에서 실천해 찾아진 대안을 대중적으로 실천하게 해 청정국토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토회관내 실천항목

- ♣ 쓰레기 는 분리 배출!!
- ♣ 캔음료 는 정토회관내 사용금지!!
- ♣ 쓰레기의 종류 및 수량 조사
- ♣ 공청회 = 내 마음의 푸른마당
- ♣ 정토회관에서 일회용품 은 사용금지!!
- 《일회용 종이컵, 커피믹스, 티백》
- ♣ 과자&빵&사탕비닐은 회관내 반입금지!
- ♣ 쇼핑 비닐 회관내 반입금지!!
- ♣ 화장지 대신 닻물 하기!!
- ♣ 닻물용 물통 을 가져고 다니자!!

코넷 콘센트 를 뽑자!!



쓰레기0운동의 첫 실시는?

“먼저 분리수거부터 실천하였습니다. 99년 5월쯤 부터 시작되었는데 놀라운 건 분리수거 하나를 지킴 으로서 하루에 100리터 2봉지정도 배출되던 쓰레기 가 1주일에 100리터 한 봉지로 줄더군요. 생활 속 에서 재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 그냥 버려지고 있다 는 애 기지요.

다음으로는 그해 9월부터 정토회관 내 캔음료를 반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즈음 한 사건이 있었 는데, 박노해 시인이 정토회관을 방문하면서 캔음료 한 박스를 보시했는데, 우리는 이를 두고 고민에 빠졌 습니다. 보시한 것이니 먹고 치울 것인가, 원칙대로 반입하지 말 것인가 논의했고 결국 1주일 지나 주변 가게에서 다른 물건과 교환하였습니다. 이 일이 각성 의 계기가 되었는지 이후 캔음료 쓰레기가 일부 손님 들에 의해 버려지는 것 외에는 전혀 배출되지 않고 있 습니다.”

이후 구체적 진행과정은?

“먼저 정토회관에서 어떤 쓰레기를 가장 많이 배출 하는지부터 알아야 하기에 2000년 4월경 쓰레기분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정토회관에서 나오는 쓰레 기를 1주일동안 버리지 않고 모은 뒤 이를 분류하였 지요. 어떤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분석 결과, 비닐쓰레기더군요. 비닐쓰레기, 화장지쓰 레기, 1회용품쓰레기 순으로 많이 배출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청회를 거쳐 실천하기 그나 마 나온 1회용품 쓰지 않기부터 제안하였습니다. 종 이컵이나 1회용 티백 등을 자기 컵 갖고 꼭에 든 녹차 나 커피 사는 등 가능한 1회용품이 아닌 대용품으로 사용하는 거죠.

1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실천이 정착될 때쯤인 6월 부터는, 과자나 사탕, 빵 등 포장비닐도 정토회관 안 으로 반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군것질을 하고 싶으 면 바구니를 들고 나가서 알맹이만 가져오지요. 이런 종류 제품에는 대개 과대포장이 많습니다. 물건마다 각각 비닐포장이 잘 되어져 팔리는 슈퍼나 할인마트

보다는 재래시장에 가서 종이박스에 장을 보거나 합니다. 이제는 시장 상인들이 알아서 비닐포장을 사용하지 않더라구요. 사실 일상생활에서 비닐포장 안 된 것을 찾아보세요. 먹고 살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2000년 10월부터는 도무지 줄지 않는 화장실쓰레기를 없애기 위해서 화장실에서 인도처럼 뒷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꼭 실천해야 하는 항목이 아니라 권장사항으로 찬물이 몸에 특별히 안 좋거나 습하면 가려움증이 온다는 이유로 6명 정도의 예외를 두고 뒷물사용을 시작하였습니다. 동시에 사무실에 휴지를 없앴지요. 걸레나 손수건으로 대신하기로 하구요. 이후 예외였던 분들도 함께 참여하면서 2002년부터는 화장지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자발적 실천사항으로 면생리대 사용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찌기 힘든 1회용 생리대 보다는 건강에 나은 면생리대를 사용하자는 것이죠. 일부에서는 1회용 생리대로 인해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진되었고 면생리대 삶고 빠는 에너지도 마찬가지로는 등 반론이 있었지만 냄새나 감촉 면에서 더 나은 면생리대 사용에 조금씩 참여자가 늘고 있습니다.

정토회 자원봉사자들이 비닐을 대신할 투명망 보급과 함께 면생리대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주문이 들어오는 등 의외로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처음에는 너희들끼리만 쓰레기 안나오면 되냐는 비난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먼저 실천하고 대안을 찾아내야만하지 않겠습니까?

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운동임을 알아야 합니다. 생활습관이란 쌓은 시간만큼 걸려야 없앨 수 있다고 하나까요. 시작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런 걸 하면 뭐하나’ 하는 자기변명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자기 삶에 원칙을 세웠으면 계속해내야 하고 그래야만 자기 삶의 결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운동이 정토회관을 벗어나 일반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기 위해 어떤 노력을?

“우선 정토회의 자원봉사자들이 투명망이나 면생리대가 대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를 제작해서 보급하는 중입니다. 투명망은 비닐을 대신

할 수 있도록 한 투명한 천으로 만든 주머니인데 커튼 공장하시는 회원이 남은 천 조각을 보내주셔서 주머니를 만들어 보급하기 시작했지요.

현재 천일결사라 하여 전국에서 약 천여명 정도가 우리의 실천사항을 개인의 삶에서 실천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동참 중입니다. 이들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각 가정에서 실천 중이지요.

사실 우리의 지금 이런 노력은 아마도 3세대, 약 100년쯤 지나야지만 생활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해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이렇게 일어난 개인의 생활 변화는 사회의 변화로 분명 이어질 것입니다.”

인터뷰 뒤 최간사는 점심공양을 같이 할 것을 권했다. 정토회관에서 음식물쓰레기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는데 ‘고추가루 하나라도 버리면 안된다’는 마음으로 깨끗이 먹은 밥그릇에 물을 붓고 김치 한 조각으로 그릇을 씻어 낸 뒤 그 물마저 마시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 옛 어른들은 뜨거운 물 버릴 때는 반드시 식혀서 마당에 뿌렸다. 마당 흙 속 미생물의 생명까지도 생각한 마음이다. 사람과 환경은 하나의 큰 생명임을 잊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지금 정토회관에서는 이 땅 위에 정토(淨土)를 만들기 위한 백년지대계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호부터 여러 시민사회 단체에서 활발하게 추진 중인 사업을 소개합니다

